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계시와 성경, 1차 세션, 역사적 소개, 젠슨, 신의 계시, 계몽주의, 그리고 기독교적 반응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계시록과 성경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A.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 역사적 소개, 젠슨, 신의 계시, 계몽주의, 그리고 기독교적 반응입니다.

우리는 신의 교리와 성경에 대한 우리의 강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와 함께 기도를 시작해주세요. 자비로우신 아버지, 당신께서 거룩한 입을 열어 당신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강의 동안 우리를 격려해주세요. 당신에 대해 배우고, 당신의 계시를 기뻐하고, 특히 당신과 당신의 거룩한 말씀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새롭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

저는 이 강의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고, 자신을 알리는 교리에 대한 성경적, 역사적 서론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기록된 말씀으로 자신을 알리는 것으로 절정에 달할 것입니다.

역사적 서론은 잘 알려진 호주 교회 지도자이자 복음주의 신학자인 피터 젠슨이 썼습니다. 그는 신의 계시에 대한 기독교 신학의 윤곽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내 옆에 책이 있는데, 내 기억으로는 내가 읽은 최초의 비평적 저작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은 18세기의 위대한 프랑스 합리주의자 볼테르의 작품을 조셉 맥케이브가 선정하고 번역한 것입니다. 저에게 가장 큰 인상을 준 것은 볼테르가 성경과 기독교를 공격한 뛰어난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둘 다에 대한 관례적인 존경심으로 자랐고, 볼테르의 경멸을 간신히 견뎌냈습니다.

인용문 속의 인용문, 볼테르를 인용한, 나의 말을 들어주시는 위대한 신이여, 그 신은 분명히 소녀에게서 태어나지 않으셨고, 교수대에서 죽지 않으셨고, 반죽 한 조각에 먹히지 않으셨고, 이 책에 모순, 어리석음, 공포를 불어넣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 신, 모든 세계의 창조주께서 그를 모독하는 기독교 종파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Whew, 인용문 닫기.

볼테르는 기독교 교리를 그 어리석음 때문에 비난하는 데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성경을 똑같이 심각하게 비난하여 도덕성뿐만 아니라 신뢰성도 공격했습니다. “나는 화학에 충분히 정통하지 못해서, 출애굽기에 따르면 하루 만에 만들어졌고 모세가 재로 만들었다는 황금 송아지를 기쁘게 다룰 수 없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기적인가, 아니면 인간의 예술에 대한 두 가지 가능성인가?”

계몽주의와의 만남. 당시에는 몰랐지만, 젤슨은 현대사의 위대한 지적 운동 중 하나인 계몽주의의 지혜에 입문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볼테르와 같은 문학의 거장의 손에서 저는 200년 이상 적대적인 방식으로 신앙을 심문하는 비판의 힘을 경험했습니다. 볼테르 시대에 기독교 교리를 특징짓는 많은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성경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부터 온 특별한 계시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는 데 근본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또한 창조된 세상을 통한 하나님의 일반 계시가 존재한다는 데 동의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사실인지에 대한 의견은 달랐습니다.

사실, 성경은 종교적 작품이며, 죄 많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기독교는 죄인을 신과의 관계로 이끄는 독특하게 권위 있고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볼테르는 무신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신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을 때, 그의 추론은 계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자연 신학에 근거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엄격하게

철학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볼테르를 인용하면, 우리는 여기서 엄격하게 철학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게시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쳐다보는 것조차 우리의 몫이 아니다. 인용문 닫기. 계몽주의가 제기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기독교는 신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았는가? 종교를 인간의 이성 안에 두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인간의 이성만을 사용하여 신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비판적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성경과 교회 역사의 기적이 진짜라고 믿을 수 있는가? 성경이 너무나 많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와 부도덕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데도 성경이 영감을 받았다는 주장에 신빙성을 줄 수 있는가? 볼테르와 같은 사상가들의 비판적 주장은 기독교 가르침의 신뢰성을 엄청나게 침식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여전히 권위 있는 교과서를 성경이라고 부르지만, 이런 용례는 단지 이전의 압도적인 인기의 잔재를 반영할 뿐이다. 실제 성경에 관해서는 볼테르의 의견이 대체로 승리했다.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을 때, 피터 젠슨은 자연 신학 자체의 사용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견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썼습니다. 데이비드 흄(1711~1776)은 자연 신학과 계시 신학을 모두 공격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신을 주장하는 것, 세상에서 신을 주장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한 주권자가 한 분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지기는커녕, 다신교가 참되다거나 신의 힘이 허약함으로 인해 제한된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더 정당했습니다. 그는 세상이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회의론자이자 스코틀랜드 회의론자인 데이비드 흄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세상은 우월한 기준에 비하면 매우 결함이 많고 불완전한 것으로 이해되며, 나중에 자신의 허약한 성과를 부끄러워하여 포기한 어떤 유아 신의 첫 번째 무례한 논문일 뿐입니다. 그것은 어떤 종속적인 열등한 신의 작품일 뿐이며, 그보다 우월한 신에게는 조롱의 대상입니다. 그것은 어떤 초자연적 신, 초연신의 노쇠와

노쇠의 산물이며, 그의 죽음 이후로 그에게서 받은 첫 번째 충동과 활동적인 힘에서 모험을 계속해 왔습니다.”

와우. 흠은 볼테르보다 계시의 주장에 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기적에 대한 공격을 집중했는데, 기적은 계시된 종교의 내용과 정당화에 필수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너무나 흔하고, 기독교가 종교를 입증하는 수단으로 기적에 호소하는 것도 너무나 빈번했기 때문에, 철학적 검토를 위해 기적을 선택한 것은 특히 의미심장했습니다. 흠의 관점에서 보면, 기적은 자연의 일관된 법칙을 깨뜨렸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역사가가 기적을 믿을 만큼 인간의 증언을 통한 증거가 결코 충분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기적에 대한 그의 담론을 기독교인에게 그들의 종교가 이성인 아닌 신앙에 기초하고 있다는 개념을 고수하라고 조언하면서 마무리했고, 그는 종교를 견뎌내기에는 너무 힘든 시험에 노출시키기 위해 이성에 호소했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아이러니와 함께 이러한 말로 마무리하며, 다시 한 번 흠을 인용합니다. 기독교 종교는 처음에는 기적이 수반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어떤 합리적인 사람도 기적 없이는 믿을 수 없습니다.

단순한 이성만으로는 그 진실성을 확신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신앙으로 그것에 동의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격에서 계속되는 기적을 의식하고 있으며, 그것은 그의 이해의 모든 원칙을 전복하고 관습과 경험에 가장 반하는 것을 믿도록 결심하게 합니다. 인용문 닫기. 와, 제 말이 주의를 끌었나요? 계몽주의의 승리, 피터 젠슨이 쓴 것처럼 계시록에 대한 이 논의를 이렇게 개인적인 방식으로 시작한 이유는 제 경험이 계몽주의의 주요 결과 중 하나를 미시적으로 보여주고 계몽주의에 이은 많은 다른 문화 운동에도 불구하고 그 지속적인 중요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볼테르의 글이 제 손에 들어왔을 때, 그리고 나중에 흠의 사상을 접했을 때, 그것들은 엄청나게 도전적이었습니다.

볼테르는 기독교 신앙을 너무나 우스꽝스럽고 억압적으로 보이게 만들어서, 기독교 신앙에 계속 충성할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볼테르와 흙이 역사가로서 각자의 시대에 특히 유명했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역사 연구에 반초자연주의의 새로운 분위기가 들어왔고, 성경의 기원과 본질에 대한 비판적 조사가 진행되면서 오래된 정통성은 그 기초에서 도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계몽주의 주장은 인간이 모든 것의 척도라는 끊임없이 매력적인 메시지에 의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인간의 이성만 판단의 정전이고, 인간의 자유는 최고의 미덕이며, 미신과 근거 없는 권위에 대항하는 인간의 진보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대성은 이러한 주장의 진실을 전제로 하며, 현대 서양인 중 이러한 매혹적인 고리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인간의 자율성 문제를 놓고 교회와 국가에 맞선 지적 투쟁에 참여했습니다. 교회와 국가 모두 자신의 권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성경에 호소했기 때문에 성경이 논쟁의 대상이 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 볼테르와 흙이 지지자일 뿐인 이 운동 전체는 무엇보다도 기독교 신앙에 대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기독교는 특히 개신교 유럽에서 지적, 사회적, 영적 권위를 잃었습니다. 베르나르드 라흐의 판단에 따르면, 인용문, 치명적인 상처, 베르나르드 라흐는 복음주의 신학자였고, 계몽주의가 개신교 정통성에 가한 치명적인 상처는 충격적인 것이었으며, 결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인용문 닫기. 또 다른 복음주의 사상가인 콜린 건튼은 "현대 문화의 두드러진 측면은 기독교 복음을 부인하는 데 근거하고 있다"고 관찰합니다.

볼테르와 흙의 글은 18세기 급진적 사상의 두 뿌리였으며, 20세기 후반에 저에게 전해졌습니다. 물론, 그들은 로크, 스피노자, 칸트, 헤겔과 같은 위대하고 다양한 사상가를 포함한 훨씬 더 광범위한 역사의 일부였습니다. 심지어 17세기에도 철학자와 신학자들은 교회와 문화에서 성경에 따른 위치를 근본적으로 바꿀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19세기에는 충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계시와 과학 간의 전쟁이라고 불렀고, 이는 종교와 계시의 권위에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윈주의는 성경의 창조 이야기와 창조의 질서에 대한 개념, 즉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인간 세계의 복잡성과 다양성은 절대적이거나 독특하다고 주장하는 모든 체계에 대한 의문을 즉시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성경 계시, 일반 계시, 자연 신학과 같은 아이디어는 철학뿐만 아니라 역사, 인류학, 종교, 과학에 대한 엄격한 연구에서도 적대감에 부딪혔습니다. 우리는 마르크스, 다윈, 프로이트와 같은 이름만 생각해도 계시에 대한 문화적 환멸의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계몽주의의 위기에 대한 기독교의 대응, 당신은 이것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신에 대한 독특한 계시를 소유한다는 주장에 대한 공격은 가장 민감한 지점에서 기독교 신앙에 도전했습니다.

적어도 서양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일반적인 반응은 불신으로 이어지는 비판에 동의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지적 지위의 상실은 현대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지난 200년 동안 교회의 가장 큰 선교 확장 중 하나가 일어났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경의 번역, 출판, 배포 자체가 특별한 역사적 현상입니다. 또한, 성경의 페이지에 대한 지속적인 집중적인 학술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완전히 신뢰를 잃은 것은 아니지만, 세계에서 가장 자주 인쇄되는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속주의가 기독교의 지적 주장에 가한 압력은 강렬했다고 말해야 합니다. 세속주의가 회원 감소와 기독교 공동체 자체 내의 상당한 긴장과 긴장에 기여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교파 간의 분열은 근대성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서로 다른 전략을 채택한 사람들 간의 분열보다 덜 중요해졌습니다.

핵심 문제는 성경에 대한 신학적 평가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신의 영감을 받았고 따라서 신의 직접적인 자기 계시라는 전통적인 견해를 계속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버나드 램스는 개신교 정통성에 가해진 상처에 대해 말합니다. 인용문, 그 상처는 결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기적적인 인용문처럼 그것이 살아남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인용문 닫기. 가장 주목할 만하지만 유일한 지지자는 북미 신학자 칼 FH 헨리로, 계시록에 대한 그의 권위 있는 6권짜리 저술은 계속해서 심각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공립 비신앙 대학인 보스턴 칼리지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최초의 복음주의 기독교인 중 한 명이며, 그 후 기독교 투데이, 복음주의 신학 협회를 설립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일반적으로 사람이 생각하는 복음주의 기독교인이자 학자가 될 수 있고, 지적인 공격 등을 피하지 않고, 나아가 은혜로운 기독교적 방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칼 헨리의 공로도 됩니다.

그런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전임자들의 정확한 생각을 재현할 의무가 있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성경 교리와 그 가르침에 대한 이해에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대 세계, 그 언어, 그리고 관습에서 얻은 풍부한 정보를 통합하려는 의지를 보였는데, 이는 계몽주의의 긍정적인 열매 중 하나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계시록에 대한 이런 설명은 항상 일반 계시라는 개념을 옹호해 왔습니다. 그것은 보통 존 칼빈이 제시한 노선을 따릅니다. 즉, 자연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지만, 그것은 억압되어 수신자를 무지하고 죄인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 대부분의 개신교도들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성경,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약의 증거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유지합니다. 그러한 존경심 없이는 종교 체계가 가장 명목상의

의미 외에는 기독교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의 주요 위치를 성경에서 옮기려는 압도적인 결정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에밀 브루너는 “성경의 영감과 계시록의 치명적인 동일시”를 언급합니다. 영감은 현재 일반적으로 약화된 방식으로 이해되거나 수신하는 주체의 깨달음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재해석의 근본적인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구하고 성경의 증거를 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성경이 볼테르와 같은 작가들이 폭로한 도덕적, 역사적 결함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직접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이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해석을 단순히 방어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많은 지지자들에게 그것은 또한 그들이 전통적 이론의 불행한 요소로 여기는 것을 잘라내고 관련된 인간과 신의 본성에 더 공정한 특징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종종 명제적 계시를 지성주의적이라고 거부하고 신-인간의 만남의 경험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종종 정적인 단어 집합보다는 신의 역사적 행위에 초점을 맞춘 역동적인 계시를 선호합니다.

게다가 그들은 오래된 이론이 성경의 다양한 형태적 본질에 충분히 공정하지 못하다고 여긴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계시가 결코 종교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견해에 상당한 공감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또한 일반 계시와 자연 신학이 기독교인에게 긍정적인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공감을 가지고 있다.

당연히 제안된 계시 신학의 유형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대체로 19세기는 자유주의의 아버지인 프리드리히 쉴라이어마허가 주도했고, 20세기는 신정통주의 신학의 아버지인 칼 바르트가 주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쉴라이어마허의 리드를 따르는 일부 사람들은 계시의

위치를 신에 대한 인간의 경험에서 찾을 것입니다. 술라이어마허는 분명히 계시의 위치를 인간의 신 경험에서 찾았습니다.

바르트와 같은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인간 중심적 접근 방식에 반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역사와 종말론을 통한 계시에 대해 말하는 볼프하르트 판넨베르크와 같은 학자들이 예시하는 주목할 만한 대안이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신학자 에이버리 덜레스는 현대 신학에서 사용되는 계시의 모델 중 적어도 다섯 가지에 대한 분류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교리로서의 계시에 대해 말하는데, 여기에는 칼 헨리와 다른 개신교와 가톨릭 작가들이 포함되고, 계시는 역사로서, 계시는 내적 경험으로서, 계시는 변증법적 현존으로서, 신정통주의로서, 그리고 새로운 인식으로서의 계시가 포함됩니다.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그는 각 모델의 많은 지지자들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정의를 제안합니다. 이는 로마 가톨릭 학자 에이버리 덜레스입니다.

그의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동이며, 이를 통해 그는 창조된 정신,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진리를 전달합니다. 사도 교회가 받아들이고 성경과 계속되는 신자 공동체가 증명합니다. 인용문 닫기. 그의 제안은 오늘날 대부분의 계시에 대한 논의에서 발견되는 여러 강조점을 성공적으로 반영합니다.

놀랍지 않게도 덜레스가 가톨릭 신자로 글을 썼다는 점을 감안하면, 강조점은 대응하는 개신교 기록보다 교회에 더 많이 있습니다. 개신교 체계 신학, 특히 20세기 신정통주의 운동의 영향을 받은 신학에서는 사상가들이 계시를 정당화하고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상당히 일정하게 유지되는 세 가지 강조점이 있는 듯합니다. 덜레스의 요약에서 이 중 일부를 찾을 수 있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각 요소는 우리가 더 이상 성경 자체를 계시 자체로 호소할 수 없고, 따라서 그러한 접근 방식에 대한 반응의 일부를 반영할 수 없다는

확신에서 단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의 다음 몇 분 동안, 저는 피터 젠슨이 신정통 신학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 요약한 내용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건으로서의 계시, 자기 희생으로서의 계시, 그리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계시.

사건으로서의 계시. 첫째, 계시를 성경의 말씀과 동일시하는 오래된 견해와 의식적으로 단절하면서, 많은 현대 신학자들은 계시가 하나님의 행위, 사건, 에피소드라고 주장합니다. 델레스는 계시에 대한 정의에서 자유 행위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이 요소를 포착하려고 합니다.

신학자들은 계시에 대한 이러한 관점을 채택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L. 밀리오레는 성경의 에피소드에 대해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사건에서 진정으로 드러나는 반면, 신성한 자유나 은폐는 결코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를 인용하면, 하나님은 계시의 사건에서 신비가 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 라고 덧붙입니다.

19세기 신학이 신을 임박하고 그의 세계에 존재하는 것으로 취급하는 경향에 반해, 후기 신학자들은 그의 초월성과 신이 될 수 있는 그의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이 점에서 그들은 칼 바르트와 신정통주의를 따릅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도권에서 비롯된 선물로 여겨져야 하며, 따라서 그의 은혜와 인간의 필요 모두와 일치해야 합니다. 계시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제하거나 요구하거나 조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책, 심지어 성경을 계시라고 규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권위를 주장하고 바리새인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문자는 소중히 여기지만 영은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계시를 사건으로 취급함으로써, 우리는 성경 자체에 더 충실한 방식으로 성경 속의 하나님에 대해 생각합니다. 성경은 시대를 초월한 진리의 핸드북과는 거리가 멀고, 하나님의 위대한 행위에 대한 이야기로, 이를 통해 그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자신을 알렸습니다. 계시를 사건으로 생각하는 것은 다른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개념이 종종 성경에서 나타나는 방식, 즉 그리스어나 히브리어 형태와도 맞아떨어진다. 예를 들어, 이 용어는 성경에서 책으로 사용되지 않고, 오히려 신과 인간 사이의 만남에서 신이 인간에게 자신을 알리는 데 사용된다. 종종 종말론적 요소가 있는데, 시대의 끝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계시라고 부른다.

또한 자연 세계이든 인간 세계이든, 신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개인은 계시를 받을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이 소유해야 할 무언가일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계시가 사건이라는 생각은 성경에서 발견되는 것보다 더 넓은 측면에서 그것을 생각할 필요성에 부합합니다.

그것은 계시의 경험이라는 주제를 제기하는데, 예를 들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모두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신의 현존감에 대한 감각을 제기하고, 다른 종교의 계시에 대한 보고를 탐구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그것은 초기 계시 이론이 모호하게 했던 신의 영의 현재의 계몽적이고 영감적인 사역에 대한 강조를 허용한다. 따라서 현대, 특히 신정통주의 계시 관점의 첫 번째 강조점은 계시가 사건이며 성경의 말씀과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 그것은 자기 희생적입니다. 현대 신학에서, 우리의 신에 대한 지식이 관계적이라는 진리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시점에서, 더글러스의 신이 창조된 마음에 구원의 진리를 전달한다는 개념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계시에 대한 명제 또는 지성주의적 관점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다른 사람의 권위에 따라 특정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간주되고 계시 자체는 주로 계시된 진리의 집합으로 생각됩니다.

현대 개신교 신학에 관한 한,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핵심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기독교는 관계, 특히 신과 인간 사이의 만남에 관심이 있습니다. 지성주의적 설명은 말하자면 인간을 멀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리의 소통이라기보다는 사람의 소통입니다. 계시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근본적으로 그에 대한 일련의 말이 아니라 그와의 관계입니다.

에밀 브루너가 쓰고 인용했듯이,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으며, 더 이상 말로 표현된 관계가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믿는 데 만족하지 않지만, 우리의 관심사는 그에게 다가가고, 그를 신뢰하고, 그와 연합하고, 그에게 행복하는 것입니다. 계시와 믿음은 이제 개인적인 만남, 개인적인 소통, 밀접한 인용을 의미합니다.

계시는 사건입니다.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계시입니다. 예수라는 인격은 이제 기독교 계시의 내용으로서 성경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로버트 모건의 말에 따르면, 바르트의 하나님의 말씀의 삼중적 형태에서, 오직 성육신한 말씀만이 적절하게 신성한 계시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삼중 형태는 그리스도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 파생적으로 성경과 말씀의 설교도 말씀이라고 불립니다. 계시가 성경에 있는 무오한 진리의 집합으로 여겨졌을 때, 모든 종류의 주제에 대한 교과서로 변하는 경향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특히 성경은 도덕적 정보의 원천이었습니다.

십계명과 행복의 말씀과 같은 목록에서 그것은 좋은 삶을 사는 데 편리한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성경은 또한 뛰어난 과학과 역사를 담고 있다고 여겨졌으며, 두 영역의 발전은 그 가르침에 의해 시험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미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약탈당했습니다.

계몽주의가 초래한 파괴는 부분적으로 이런 종류의 성경 남용의 유산이었습니다. 성경의 본질에 대한 잘못된 평가는 성경의 말씀을 남용하고 실제 의미를 무시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현대 주류 개신교 신학자들에게 분명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 현대 개신교 신학자들에게 분명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성경을 일차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감받은 무오한 말씀으로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청중과 시청자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무오한 계시이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해야 할까요? 그 말씀은 또한 인간의 말씀이기도 하며, 이는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으로 이해하도록 이끍니다. 하지만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역사적 서론이 우리가 생각하도록 자극하고, 우리가 이웃과 다른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 그들의 사고방식을 고려하는 데 도움이 되며, 전반적으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의 자리에 앉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교리에 대한 성경적 서론을 읽을 때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결론은 계시의 진정한 본질을 분명하게 해줍니다. 그것은 성경이 실제로 무엇에 관한 것인지, 즉 예수 그리스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오직 신의 계시이며, 그에 대한 다른 모든 계시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오직 그에게서 의미를 가져온다고 주장하고 싶어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덜레스의 제안처럼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의 장소로 말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따라서 키스 워드도 예수 안에서의 신의 성육신을 신의 중심적인 계시적 행위로 묘사합니다.

행동으로서의 신, 자기를 베푸는 신, 예수로서의 신이 있습니다. 계시는 이 세 가지 모두입니다. 어떤 경우든, 계시의 근원으로서 성경, 자연, 교회의 전통이 한때 지녔던 인식론적 무게가 계시에 대한 많은 설명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는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에서 그에게 부여된 바로 그 칭호이며, 다른 모든 말씀은 이 칭호로 시험받아야 합니다. 이 초점에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성경 자체가 말하고 다루는 내용과 일관성이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최초의 기독교 전도자들과 신약의 메시지는 정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요약될 수 있다. 더욱이 그것은 그리스도 자신을 중재자로 만든다. 그가 진실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라면 그래야 한다(딤후 2:5). 그는 보조적인 사자,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자 인간,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지점이다. 둘째, 그것은 가능한 최선의 방법으로 기독교 계시를 옹호한다.

그것은 그것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었습니다. 사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 자신은 시험받거나 시도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증명해야지, 검증을 위해 덜한 도움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성경을 옹호할 때,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는 두려움을 즉시 드러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그가 전파될 수 있고 선언문 자체가 설득되어 성령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계시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계시를 주로 또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는 데 있어서 인식되는 주요 이점 중 하나는 계시를 주장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 이야기하는 올바른 방법을 찾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에 대한 우리의 평가로 측정될 수 있다. 특히,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 대해 따뜻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성경의 진정한 본질에 정의를 내릴 수 있게 해준다. 델러스는 성경의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제안한 것이 옳다.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인으로 가장 많이 여겨진다. 즉,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존중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지만, 성경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으며, 성경이 하나님의 성격을 그대로 지닐 수밖에 없다. 나중에 시편 119편에서 주님께서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묘사하는 데 똑같은 형용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흥미롭군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성경 숭배와 성경에 대한 부적절한 숭배를 피할 수 있고, 성경의 구식 역사와 과학으로 여겨지는 것이 신앙에 불필요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위험을 피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평가 .

좋아요, 우리는 물을 저었습니다. 우리는 몇 개의 목재를 떼게 했을 겁니다. 볼테르와 다른, 솔직히 말해서, 이단자들부터 시작해서요. 데이비드 흄, 세상에, 가장 위대한 회의론자.

평가. 우리는 먼저 위에서 부분적으로 설명한 계시록의 기록이 중요한 지적, 신학적 성과라고 말해야 합니다. 지적 구성물로서의 기독교 신앙 자체가 사라질 것처럼 보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이 받은 비판에 따라 어떤 종류의 권위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듯 보였고, 기독교나 삼위일체와 관련된 정통성의 모습도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주장함으로써, 위에서 제시한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삼위일체 교리를 기독교 신앙의 중심으로 되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계시를 보고 받을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자신의 역사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며, 계시의 행위가 특히 하나님의 영의 역사임을 압니다. 즉, 우리가 계시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사실, 여기에 설교될 수 있는 기독교 신앙의 한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신과 그가 누구이고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좋은 소식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존경을 표하고 기독교가 단순히 인류학을 크게 쓴 것이라는 포이어바흐의 비판에 맞서려고 시도합니다. 철학자 포이어바흐는 신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우리 자신의 생각, 특히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을 이 가정된 신에게 투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그런데 계시록이 이렇게 재활동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정의를 행하는 데 전적으로 성공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피터 젠슨이 말합니다. 그의 복음주의적 색채가 드러납니다. 결정적인 지점에서 증상적인 모호함이 있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기대하게 하는 종류의 지식이 없습니다.

신학적 사상가들은 신의 중심으로 되돌리는 데 성공했고, 신을 사물의 중심으로 되돌리는 데 성공했지만, 성경에서 발견되는 신과의 관계의 본질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저자의 경험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조건으로 신과의 관계를 이룰 수 없는 기독교 신앙은 의심스러운 타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것이 신을 신약에서 가정하고 가르치는 것과 같은 신자들의 삶에 대한 권위의 위치에 두는지 여부를 묻는 것으로 신에 대한 현대적 재구성의 현실성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현대 신학에서 말하는 계시가 그런가? 이 중요한 시험을 통과하지 않는 한 , 성경에서 언급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명확한 연속성을 지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제공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현대 사상과 마찬가지로 신학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자율성이라는 개념을 반영하지 않는가? 현대 신학의 신앙이 신약의 신앙과 일치하는가? 계시에 대한 현대의 설명에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조가 너무나 많은 진실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이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할 수 있다. 그러나 설명에는 근본적인 부족이 있어서 다른 결론으로 이어진다.

최초의 신자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인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믿음 자체는 필연적으로 그들의 것과 다른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증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그것은 사도의 자격 중 하나였습니다.

사도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다르고 더 권위 있는 범주를 사용합니다. 어떤 학자들이 세례자 요한을 모범 증인으로 삼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그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게시록 재구성의 세 가지 주요 요소 각각에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 핵심적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이 분수령입니다. 이것은 도달한 결론의 본질을 형성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계시는 신의 행위,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연설이 지속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사건이 아니라고 선형적으로 선언함으로써 문제의 사건을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행위가 행해졌다고 발견한 모든 기록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행위에는 시나이산에서처럼 위대한 언어 행위가 포함되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행위는 그에 수반되는 해석적 단어 없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이 종종 지적되어 왔습니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에피소드적 성격이 발생하는 시간에 계시적 영향을 찾을 수 있다고 결정함으로써 사건을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특정 계시가 구체적인 사건이고, 여기서 계시가 일화적이지 않고 지속적인 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태양, 달, 별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묘사하는 단어를 통해 지속적인 삶을 계속 가질 수 있습니다. 한번 밝혀진 미스터리는 밝혀진 미스터리로 남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약속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애매한 에피소드적 언어 행위가 의도되었다는 생각은 하나님의 자유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지만, 말씀에 대한 그의 신실함을

손상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다시 한 번,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약속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젠티안은 그것이 그렇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다음, 계시에서 하나님의 애매한 에피소드적 언어 행위가 의도되었다는 생각은 비록 하나님의 자유를 하나님으로서 보존하기 위한 것이지만, 말씀에 대한 그의 충실함을 손상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둘째, 내가 설명한 계시의 설명은 자기 희생이라는 생각을 선호합니다. 그 개념이 중요한 진실, 즉 기독교 신앙의 관계적 본질을 포착하려 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으며, 때때로 신앙이 과도한 형식화와 지성화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언어의 목적은 계시를 영감받은 언어에 대한 의존에서 명확히 분리하고, 사람에 대한 믿음을 말에 대한 믿음보다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관계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언어는 믿음이 오는 필수적인 경로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말을 믿어야 하며, 사람을 믿는 것과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것 사이에 실질적인 구별을 두지 않습니다.

말이 없는 관계는 빈곤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얼마나 더 빈곤할까요? 이것은 지나치게 실현된 종말론의 경우가 아닐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시각이나 경험보다는 믿음으로 걷고,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라는 주장은 아직 우리의 것이 아닌 관계의 직접성을 말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공의를 베풀어 줄 무언가로 대체할 수 있기를 바라는 희망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상 실체가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성경의 언어에 대해 다른 접근 방식을 가진 이전 세대로부터 모은 신학적, 종교적 자본에 살고 있지 않은가? 예를 들어, 우리는 위에서 제안한 대로 계시록을 분석하여 삼위일체 교리에 도달할 수 있는가, 아니면 사실 성경의 정확한 언어에서 비롯된 것인가? 셋째, 이 계시록의 설명은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춥니다. 내가 이미 관찰했듯이, 그러한 초점을 맞추지 않은 신학은 전혀 기독교적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게시록을 비판적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려고 시도하면서 그리스도와 그를 증거하는 말씀 사이에 근본적인 구별이 생깁니다.

키스 워드가 쓴 것처럼, “적어도 기독교 신앙에서 성경은 계시 자체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계시에 대한 일련의 인간 증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뢰하는 그리스도는 성경의 예수여야 하며 다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에게 말로 접근할 수 있는 데에는 기원과 의미에서 없어서는 안 될 특별한 특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최종적인 계시의 부담을 주지만 영감받은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 그에게 접근할 수 있는 선택은 우리를 다시 한번 어둠 속에 남겨두고, 우리는 올바르게 빛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계시가 사건이라는 견해에 헌신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믿음은 이 사건에 대한 증거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말씀과 증거의 매우 적절하고, 매우 성경적이며, 적절한 언어가 복음과 사도의 더 근본적인 언어보다 부당하게 우선시되었습니까? 저는 최근 개신교 신학의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만 논평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료와 다른 자료를 조사하면 두 가지 결론이 도출됩니다. 첫째, 계몽주의와 그 여파로 인해 기독교 신앙에 제기된 문제는 해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계시 교리의 각 요소에는 성경의 말씀이 직접적이고 계시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거부하는 데서 비롯된 불행하고 본질적이지 못한 분열이 있습니다.

제가 이미 지적했듯이, 계몽주의 이후의 세계에서 그 위치를 회복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대안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는데, 특히 처음에 도전했던 사람들에게 도전한 것이 가장 큰 성과입니다. 마르크스, 프로이트, 볼테르, 흄, 심지어 칸트조차도 예전처럼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 내의 다양한 균열, 특히 자유주의적 전략을 가진 사람과 보수적 전략을 가진 사람 간의 분열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대한 책임감 있는 글은 1960년대의 더욱 급진적인 신의 죽음에 대한 해결책에서 물러났습니다. 명제적 계시록과 같은 이전 세대가 없앤 주제 중 일부는 마침내 진지하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으며, 계몽주의 문화의 기본 원칙이 매우 비기독교적이고 매우 비인간적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피터 젠슨의 역사적 서론을 마무리하고 계시록과 성경 교리에 대한 성경적 서론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로버트 A. 피터슨 박사가 계시록과 성경에 대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세션 1, 역사적 서론, 젠슨, 신의 계시, 계몽주의, 그리고 기독교적 반응입니다.